1. 개성은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든다

존 스튜어트 밀은 인간은 자신을 생명체로 만드는 내면적인 힘을 토대로 모든 방향으로 성장을 꿈꾸는 나무와 같은 존재라고 말한다. 또한 스스로의 이성적 판단에 의해 관습을 따르거나 이성적으로 관습에서 일탈하는 것이, 맹목적으로 단순하게 관습을 기계적으로 답습하는 것보다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며 욕망과 충동을 포함한 개인의 감수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인간은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에서 시작하여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타인과의 소통을 통해 자아를 형성해나간다. 이러한 인간이 하는 이성적 판단과 그들이 갖는 개성은 관습을 완전히 배제하고 형성될 수 있는가? 형성될 수 있다면,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는가?
1. 자유의 원리가 잘못 적용된 경우: 어린이 교육

“자유에 대한 빗나간 생각으로 말미암아 부모의 도덕적 의무가 요구되는데도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가 하면, 부모의 법적 의무가 마땅히 필요한데도 그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비단 교육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한 인간을 존재하게 한다는 사실 자체가 인간 생활 영역 안에서 부모가 무엇보다도 먼저 책임져야 하는 행위 중의 하나다. … 유럽 대륙의 많은 나라에서 결혼 당사자들이 가족을 부양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결혼을 금하는데, 이것은 국가의 정당한 권력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러한 법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침해 행위를 금지시키는 국가의 정당한 간섭이라고 생각한다.”

* 가족을 부양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결혼을 할 수 있는 법은 국가의 정당한 권력 행사라고 할 수 있는가?